

역시 임종석, 호남과 민주당을 외면하지 않았다

공천 컷오프에도 “당의 결정 수용한다” ... 탈당 논란에 중지부 친문·호남의 상징... 민주당 승리 위해 개인 입지 포기 ‘선당후사’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컷오프 결정에도 당에 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치권 일각에서 예상했던 탈당과 함께 새로운 미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은) 탈당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락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의례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의 탈당과 함께 새로운미래 합류 가능성을 점쳐왔고, 새로운미래도 임 전 실장의 영입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만남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탈당 가능성에 중지부를 찍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이외에는 공천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며 무거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친문(친 문재인)의 핵심 인사이자 호남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임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입지를 포기한 대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는 ‘선당후사’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호남 몫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탈당, 민주당에 해당 행위를 한다는 반호남정서에 직면한 탓에 임 전 실장을 영입해 국면 전환을 꾀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에 남기로 한 발표와 관련해 “당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준 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임 전 실장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 역할론’에 대해선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없다”며 “임 실장도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하락세인 민주당 지지율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물음엔 “저희들의 부족함에 대해 국민들께서 질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천이 거의 막바지이고 또 대부분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부족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군열과 같은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대일 TV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만이라도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광주 8개 선거구 모두 후보 출마

“민주당과 정책대결 펼치겠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자를 내며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5일 오전 10시 주기환 시당 위원장과 이번 총선에 나설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이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번 총선에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를 모두 공천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낸 것은 16년만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을, 동남을 선거구에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공천했다. 서구갑 선거구는 하현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를 당협위원장을, 서구를 선거구에는 김운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 기획단장을 후보로 확정했

다. 또 북구갑에는 김정명 광주시당 부위원장을, 북구을에는 양종아 한샘클래스식기회 대표를, 광산갑에는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광산을에는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사장을 각각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주기환 시당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8명 후보들은 광주 발전을 위한 공약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며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의힘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尹 “의대 증원, 대구 등 지방서 혜택 누리게 할 것”

대구경북 신공항 2030년 개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일부 지방대 의대를 거론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의사 증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증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면서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도로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동훈 “국민추천·비례공천에 청년 참여 기회 넓힐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 등에 대한 국민추천제 및 비례대표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목소리를 더 내고, 거기에서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룰대로라면 그게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인 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 그리고 강남 등 지역에 대해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제한 없는 공모를 받고 선택할 건데,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정치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인생에서 이론 실적만으로 경쟁하면 청년 세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점을 보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